‘나무아미타불’과 하나되는 것이 염불

서방극락이 그대의 집

선화상인 지음 | 정원규 · 이정희 옮김
민족사 펴냄 | 1만 2800원

근 · 현대 중국불교의 가장 뛰어난 스승인 허운 대사에게 인가 받고 중국 위앙종의 9대 조사, 현신 관세음보살로 추앙받는 선화 상인의 대표적인 염불 법문집이다.

선화 상인은 일찍이 불법의 불모지인 미국에 들어가 서양인을 대상으로 불법을 널리 전했다. 불교를 전혀 모르는 서양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경전의 내용과 다양한 실화 및 구체적 비유를 통해 아주 쉽게 설해 주고 있다. 염불 법문의 깊고 심오한 뜻을 알기 쉬운 말로 거르고 또 걸러서 불법에 무지한 이들이 소화할 수 있도록, 염불 법문의 정수를 손에 쥐어주듯 자상하게 설해 놓았기에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가령 불보살님께서 빛을 발해 그대에게 가피를 내리는 것 또한 그대 자신이 부처님이나 혹은 보살님을 염해서 얻은 공덕의 감응인 것입니다. 다시한번 전화거는 것에 비유하자면 만일 그대 스스로 전화걸지 않는다면 누가 그대의 전화를 받을까요? 염불도 그와 같은 도리이며, 이렇게 불력에 의지해 정토에 날 수 있으리라고 바라는 마음은 사실상 욕심이며, 바로 의존심일 뿐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속에서 늘 접하는 전화에 비유한 것처럼 선화 상인의 법문은 알아듣기 쉽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쉬우면서도 정곡을 찌른다. 그래서 불교가 어렵다든가, 염불수행은 나이든 노인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을 없애게 한다. 전화를 걸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받지 못하듯이 염불가피는 불보살을 염해서 얻은 공덕의 감응이므로 염불은 자력과 타력이 어우러진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요, 의존심이라고 저자는 강조한다. 즉 타력만으로는 결코 가피를 얻을 수 없음을 일깨워 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법문한다. “〈대집경(大集經)〉에 이르기를 말법시대에는 수억 만명이 수행하나 한 사람도 도를 얻기 힘들어 오직 염불에 의해서만 생사를 건널 수 있습니다. 천만 명이 수행하되,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수행에 성공할 수 있으리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염불 한 가지 법문만이 그대를 피안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는 말법시대로서 염불은 그야말로 일반인의 근기와 상응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봐도 세월호 참사 같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말레이시아 항공기 격추 사고 같은 재앙과 위기가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말법시대인 것이다. 그래서 저자의 염불법문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히 다가온다. 저자는 〈대집경〉의 내용을 인용해 오늘날과 같은 혼탁한 시대에는 염불이 사람들에게 가장 적당한 수행법이요, 생사를 건널 수 있는 수행법임을 역설한다.

이 책에서는 이와 같이 왜 염불을 하는지, 염불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염불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해 놓아 책장을 넘기면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 진다.

“염불은 ‘나무아미타불’과 나 자신이 나뉘지 않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외에 어떠한 ‘나’도 있지 않고, ‘나’ 외에 어떠한 ‘나무아미타불’도 없을 때까지 염하여 내가 염하는 ‘나무아미타불’과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간 일체의 모든 것은 정해진 것 없이 모두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업장이 매우 깊어 원래 서방 정토에는 왕생할 자격이 없으나, 단지 우리가 만일 진심으로 성심껏 염불한다면 우리도 왕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곡진한 염불법문을 통해 왜 이 시대에 염불수행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견해도 갖게 해준다.

선화상인의 대표적 염불 법문집
“염불 말법시대에 가장 필요한 수행”
수행 이유, 방법 등 상세히 소개

책은 총 4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지막 제 4장 ‘천도의 진실한 의의’ 편이다. 선화 상인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왜 천도를 해야 하는가, 천도방법, 천도의 경전적 근거, 천도의 실제적인 감응 사례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상하게 천도 법문을 해준다. 이 법문은 염불의 수승한 공덕으로 천도가 된다는 것, 염불의 중요성을 무척 강조하고 있기에 염불법문이라 할 수 있다. 천도법문이 이 책의 한 장을 차지하게 된 까닭이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선화 상인은?

법명은 안자, 자는 도륜이다. 상인은 1918년 중국 길림성 쌍성현서 태어났다. 19세 때 삼연사 상지대사에게 출가해 사미계를 받았다. 하루 한 끼만 먹고 저녁에는 눕지 않고 〈화엄경〉에 절하고 정토참법(淨土懺法)으로 참회했다. 1956년 선가 5종 법맥을 이은 허운 선사(虛雲 禪師, 1840~1959)에 이어 제46대이자 중국 위앙종 제9대의 조사가 되고 ‘선화(宣化)’라는 호를 받았다. 1974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유키아에 만불성성을 건립한 후 미국 등 세계 각지에 약 20여 개의 도량을 건립했다. 상인은 일생 계율을 엄정하게 지키고 참선과 염불예참, 경전연구, 계율수지 등을 특히 강조했다.

나를 망치는 것은 탐욕과 이기심… 佛母 형제의 비극으로 승화

제비원이야기

주호민,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 공저
애니북스 펴냄 | 1만원

전국에 산재한 천년 고찰에는 모두 제각각의 창건 설화가 숨어있다. 민담 형태로 전승돼 온 사찰 설화들은 대부분 부처님을 예경해 절을 지어내는 그 시절 돈독한 불심(佛心)을 느끼게 해준다.

경북 안동의 제비원도 그렇다. 안동 시내에서 영주 방면의 한티재를 넘어가면 국도변에 거대한 미륵 마애불을 만나게 된다. 이 마애불이 보물 제115호 안동 이천동 석불상, 일명 ‘제비원 미륵불상’이다. 뒤편에는 아담한 규모의 연미사가 자리잡고 있다.

제비원에는 연이 처녀와 미륵불을 조각한 형제를 다룬 각각의 설화가 전해진다. 전통 문화에 담긴 이야기를 새롭게 ‘스토리텔링’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만화가 주호민이 두 가지 설화를 엮어내 〈제비원 이야기〉로 재탄생시켰다.

경상북도문화콘텐츠진흥원의 기획으로 이뤄진 이 작품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 웹툰에 먼저 공개됐고, 완결까지 모두 누적 페이지뷰 750만 건을 기록하는 등 네티즌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도 주호민의 〈제비원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추천사를 쓰기도 했다. 자승 스님은 추천사에서 “이 작품이 안동의 전설과 민담 그리고 불교문화가 버무려진 흥미로운 소재로 불교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주호민의 손에서 새롭게 각색된 〈제비원 이야기〉는 불모(佛母) 비운, 비몽 형제가 최고가 되기 위한 경쟁을 벌이면서 벌어지는 인간적 고뇌와 번뇌를 불교적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다. 특히 동생 비몽이 스스로의 탐욕과 형 비운과의 경쟁심, 연이 처녀에 대한 사랑의 실패를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대목은 작품의 백미다. 이 같은 대립구도는 일본 만화의 거장 데스카 오사무의 〈불새 봉황편〉(가오우 이야기)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작품의 마지막, 불가의 귀의한 연이 처녀는 자신이 구한 제비를 다시 만나 묻는다. 너희는 정말 ‘시시비비(是是非非)’라고 우느냐고. 그리고 독백한다.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알아? 난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새롭게 각색된 제비원 설화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은 없고, 자신의 욕망으로 나눠진 편견만이 있음’을 설파한다. 단순하지만 깊은 깨달음을 〈제비원 이야기〉는 전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종파를 창시한 의미 탐구

시대를 이끈 창종자

김천 지음 | 참글세상 펴냄 | 1만 3800원

한국 창종자들에 대해 쓴 이 책은 종교적 관점이나 해석보다 역사 속에서 인간의 자각과 실천이 어떤 힘을 지니고 있을까를 탐구했다. 대부분은 역사자료와 종교 경전을 토대로 전문학자, 종교인과 직접 인터뷰해 기술했다.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불교의 진각종을 비롯해 천도교, 원불교 등은 현재에도 교세를 확장하며 종파로서의 위상을 충실히 다지고 있다. 사회가 병들수록 종교의 반사회적 행태들은 깊어간다. 더욱이 합법적 사업의 탈을 쓰고 신자들의 재산을 갈취하거나 물품 강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로 볼 수 없다.

어떤 믿음이 종교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의식과 교의를 지닌 집단이어야 한다. 민족의 정서를 관통하는 무속의 세계관이 종교가 못된 것은 그만큼 강력한 집단의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이래 외래 종교가 들어오면서 개별적인 종교 체험이 사회화되고 거대한 종교집단이 나오게 됐으며, 자생의 종교도 생겨났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여러 종교 창시자와 그 가르침들을 소개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진각종을 만든 회당 손규상 종조에 대해 설명했다.

회당 손규상은 “불교는 복을 비는 종교가 아니라 마음속의 깨달음으로 진리에 다가서는 종교”라며 진각종을 창종했다. 농림촌에서는 주로 관세음보살을 외우는 기도로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다. 신비한 체험으로 병이 낫자 손규상은 이곳에 머물며 49일간 기도를 마쳤다. 이후에 아예 마당에 움막을 지어 ‘옴 마니 반메 훔’을 외우는 100일간의 정진끝에 마침내 손규상은 대각의 종교 체험을 이뤄 진각종을 개창했다.

김주일 기자

깨달음과 과학 소통 가능할까?

양자 물리학과 깨달음의 세계

양철곤 지음 | 생각나눔 펴냄 | 1만7천원

깨달음의 세계(종교)와 과학은 양자물리학이 등장하기 이전인 19세기 말까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다. 그러나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인 소립자를 알고 난 뒤로는 종교와 과학이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것이 자연을 보다 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과학 없는 종교는 맹신이요,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의 세계와 과학을 하나로 소통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화두였으나, 속 시원하게 논리적으로 융합시키지는 못했다.

이 책에서는 깨달음의 핵심인 중도의 의미를 소립자의 특징인 불확정성 원리, 상보성 원리(이중성), 양자중첩, 확률파를 하나로 통하게 함으로써 깨달음의 세계를 보다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자는 깨달음을 체득하기 위해서는 원리(진리)를 확실하게 체득해야 하며, 이때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지혜(통찰력)를 얻음으로써 삶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원리는 모든 것과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이를 깨달으면서 생긴 통찰력으로 모르는 것이 없어진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즉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무학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이 책은 전통적인 방편을 응용한 현실적 수행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상 속에서 깨달음의 지름길로 가는 길을 안내한다. 동시에 깨달음의 핵심 원리를 통한 삶의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공식도 함께 제시한다.

김주일 기자

종교와 신화의 차이점 분석

블리스, 내 인생의 신화를 찾아서

조지프 캠벨 지음 | 노혜숙 옮김
아니마 펴냄/1만2천원

잔혹한 현실을 밑바닥까지 긍정하게 하고 인생의 모험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영감을 일깨우며 온전한 인격의 완성으로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동서고금의 모든 신화가 공통적으로 하는 기능이다. 오래된 신화나 전설, 문학, 제도화된 종교 ,무엇이든 당신을 지켜주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일깨워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화다. 인간이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신화의 기능은 아직 유효하다. 신화의 영웅들은 우리에게 인생의 모험을 받아들이고 도전하는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는다.

신화는 인간 내면의 본질적인 심상이고 상상력의 산물로 우리가 지닌 잠재력에 이르려는 인간정신의 욕구를 반영해서 무의식으로 생각하고 지향하는 바를 선명한 그림으로 보여준다. 조지프 캠벨은 전 세계의 종교와 신화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깊은 통찰력과 동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대중들이 알기 쉽고 흥미를 갖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무엇보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한 세계관의 변화와 기존 도덕관과의 충돌로 정신적 혼란을 겪는 현대인들에게 인류의 삶을 반영하는 동서양의 신화에서 시대를 아우르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탐색하며 미래에 인류와 개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캠벨은 더 상징의 보편성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정신이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 가게 되고 인류뿐 아니라 모든 우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마지막 장인 청중과의 대화에서는 영웅 신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듯한 여성들이 추구할 수 있는 의미에 대한 캠벨의 생각을 들을 수 있다.

김주일 기자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취목걸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